보훈청, 국가유공자 명패달기 행사

장흥군수가 장흥군 안양면에 거주하는 무공수훈자 고 박경주의 자녀 자택을 방문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에 참여했다.

26일 보훈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고, 사회 각계 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다. 지난 22일 행사에서는 김성 군수와 신금수 무공수훈자회 전라남도지부 장흥군 지회장, 임종배 광주지방보훈청장이 함께 국가유공자 유족을 위문하고 명패를 달아드리는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 장흥군수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만나뵙고 명패를 직접 달아드리게 돼서 뜻깊게 생각한다" 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다함께 기억하고 계승해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종배 광주지방보훈청장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이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됐음을 가슴깊이 새기고 이분들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민 기자

시교육청, '행복나눔 쌀'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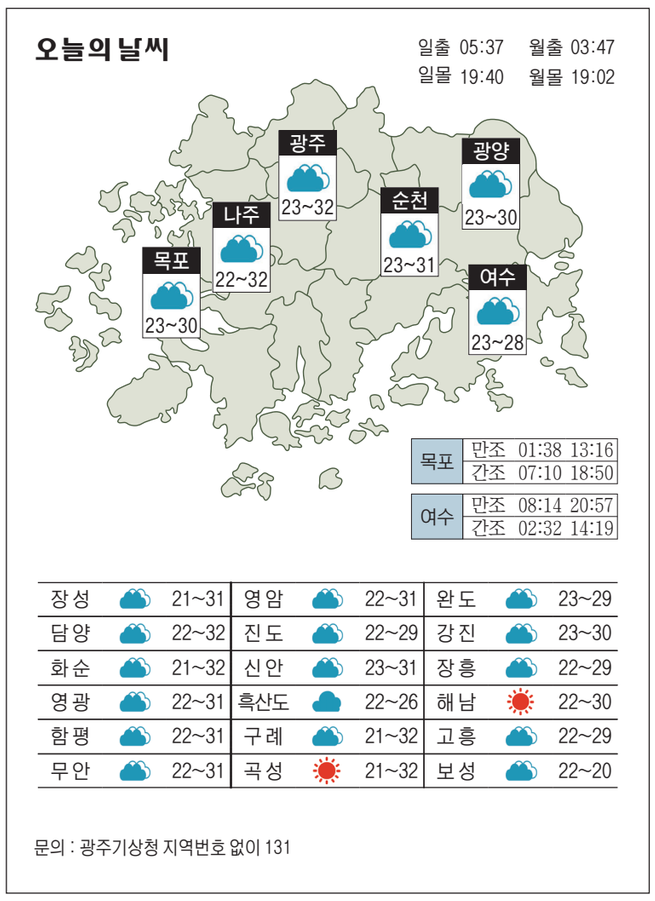
광주시교육청은 NH농협 광주본부 후원으로 '행복나눔 쌀(3,300만원 상당)' 을 돌봄세대 가정에 전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복나눔 쌀후원' 은 'The 행복한 동행'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후원된 쌀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본부에 기탁돼 지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를 포함한 동구끄덕끄덕 학생보호망 시범 운영학교에서 추천한 300세대 가정에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NH농협에서는 돌봄세대 가정을 후원하고 지역농가의 쌀소비 촉진을 돕기 위해 이번 사업에 동참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관내 초·중·특수학교 300명 가정으로 행복을 나눌 쌀(각 40kg씩)을 개별 배송할 예정이다. /최환준 기자



"사명감 갖고 어려운 이웃 돕고 싶어요"

UN평화모델 광주선발대회 대상 이선주씨

오는 10월 서울 본선대회 진출

호남 최초 여성 지점장 출신

2020년 문단 데뷔…시집 출간

"그동안 가꾸며 쌓아온 인문학적 소양과 다방면의 경험이 밑바탕이 돼 UN 평화모델 광주선발대회에서 대상을 받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7회 UN 평화 모델 광주 선발대회 시니어부에 출전해 대상을 거머쥔 이선주씨(59)의 수상 소감이다.

이씨는 이날 UN 평화사절단 홍보대사 선발과 함께 세계문화예술연합회와 아시아평화예술협회에서 선정한 2022년 글로벌 명인대상(시문학부문)도 받았다.

이씨가 수상한 UN평화모델선발대회는 UN의 날을 기리고 큰 뜻을 잊지않기 위해 국제모델총연합회 주최로 매년 열리고 있다. 대상을 받은 이씨는 10월 24일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리는 본선에 진출, 이 자리에서 부산, 울산, 경기, 충청, 대구 등 예선 대회에서 입상한 모델과 최종자리를 놓고 겨룬다.

UN평화모델선발대회로 새로운 삶에 도전하게 된 이씨는 지난 40년 간 은행원의 삶을 살았다. 지난 2011년에는 호남 지역 최초 여성 지점장으로 발탁돼 10여 년 간 5개 지점을 이끌며 수장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이씨의 삶은 늘 도전의 연속이었다.

감성적인 성격 탓에 글을 쓰고 싶어 2009년부터 퇴근 후에는 고 문병란 시인에게 글을 배웠다. 2020년 현대문예 '개망초' 라는 시로 문단 데뷔도 했다. 현재는 한실 문예창작 방그레 문학회(지도교수 박덕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카시집 '그리움 흔들리는 날' 을 출간하기도 했다. 풍경과 꽃 수채화를 그리는 화가로서의 삶도 살고 있다. 그런 그에게 모델도 또 하나의 도전인 셈이다.

이씨는 "우연치 않은 계기로 모델지도사 수업을 들었다. 수업내용에 자세교정 등의 커리큘럼이 담겨 있었는데 여자로서 익혀 놓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모델에 도전할 것이라는 생각조차 못했다"며 "글로벌 명인대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인이 UN평화대회 출전을 권했고 대회에 도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상 비결에 대해 이씨는 "대상을 받아도 충분할까 라는 의문도 들었지만, 내 삶을 돌이켜보니 상을 받아도 될 자격이 있다고 확신했다"며 "멋 내기를 좋아해 외적으로도 자기관리가 잘됐고, 지난 달을 치열하게 살아왔으며 최근 모델 지도사 과정을 배운 탓에 워킹혼자 연습할 수 있을 정도였다. 준비가 돼있다 보니 생각도 못할 때 찾아온 기회를 잡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대전의 한 기업의 홍보대사로도 발탁된 이씨는 10월 UN 평화모델 본선진출과 함께 앞으로의 모델 활동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씨는 "광주 예선대회에 출전한 내 모습을 본 기업대표가 구강 제품 모델을 제안하기도 해 새로운 도전에 기대 된다"며 "UN 평화모델 본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우리나라 한복의 고유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평화봉사사절단' 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 교수 연구팀 논문 '어드밴스드 드러그 딜리버리 리뷰스' 게재

암치료 사용 박테리아 영상화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핵의학과 민정준(사진)·유수웅·권성영·강세령 교수연구팀의 논문 '박테리아 매개 암치료를 위한 분자영상 접근방법' 이 약물전달기술 분야의 최고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드러그 딜리버리 리뷰스' 에 게재됐다.

26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이 논문은 암치료에 사용되는 박테리아를 영상화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기법 및 유망한 박테리아 표적 물질 및 그 활용례 등을 정리한 리뷰이다.

논문은 민정준 교수가 교신저자로, 유수웅·권성영 교수가 공동 1저자, 강세령 교수가 공저자로 참여했다.

1저자인 유수웅 교수는 난치성 종양에서 박테리아를 이용한 병합 치료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주제로 '지역 거점 혁신형의사과학자공동연구사업' 의 연구개발과제 책임자다.

지난 2월에는 이 연구의 성과를 인정받아 '혁신형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 병원협의체' 로부터 우수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교신저자인 민정준 교수는 현재 박테리아를 이용한 암 치료 및 체내 영상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로, 분자영상테라노스틱스 연구단을 이끌고 있다. 또 전남대학교 창업기업인 '씨앤큐어' 의 공동대표로서 연구개발 기술의 사업화 및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최환준 기자

조선이공대-광산업진흥회, 고용창출 협약

조선이공대와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산학협력 및 고용창출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26일 조선이공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학3호관 테크숍에서 조선이공대 조순계 총장, 한국광산업진흥회 안선영 총괄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 간 본격적인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유와 협업 활성화를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 광산업의 발전과 함께 안정적인 고용창출에도 적극 노력키로 합의했다. /최환준 기자

광산구 제4기 구민감사관 공개 모집

내달 4일까지 접수

광주 광산구는 제4기 광산구 구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산구 구민감사관은 주민들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와 열린 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다.

제4기 구민감사관은 총 20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광산구에 주민등록돼 있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광산구에 위치하고 있는 시민 중 법률·회계·세무·문화·환경·건설·건축·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행정·구정 발전을 위해 지역단체 등에서 적극 활동 중인 시민이 대상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4일까지다.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준비해(광산구 홈페이지 공고 참조) 광산구 감사관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광주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광산구청 2층 감사관실), 전자메일(mcmc@korea.kr)로제출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민선8기를 맞아 구민감사관을 새롭게 정비하여 운영을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다"며 "각 분야 전문가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구민감사관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감사관(062-960-8064)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산구 구민감사관은 2016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운영돼 왔다. 최근 종료된 '2022년 동(洞)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참여를 비롯해 자체 감사 참여, 주민 불편사항 제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윤영봉 기자

전매게시판

이웃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보내실곳 jndn@chol.com

부음

▲홍봉렬씨 별세, 박정순씨 배우자상, 행기(서울신문 광주본부장)·진기·현주씨 부친상, 노진자·김진아씨 시부상, 윤상균씨 장인상=26일, VIP장례타운 VVIP 101호, 발인 28일 오전 9시. 062-521-4444.

알림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무료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봐주기 등(실버에 한함) 010-8602-0001.

▲광주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 24시간 상담진행 학대피해노인전용 쉼터운영. 1577-1389.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니코틴·인터넷·약물·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상담=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 미혼모 상담=미혼으로 임신해 무료 산전 후 진료·분만 혜택과 상담서비스 제공, 24시간 상담가능 080-733-1313, 222-9349.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 5시 무료상담 654-3802.